

가이류오지 절(海龍王寺, 해룡왕사)

가이류오지 절이 창건된 때는 아스카 시대(552~645년)로 처음에는 불교의 수호신인 비사문천이 모셔져 있었습니다. 궁정의 유력자였던 후지와라노 후히토(659~720년)가 이 절의 부지를 둘러싸는 형태로 저택을 지었고, 그 후 731년에 후히토의 딸인 고묘 황후(701~760년)가 절의 이름을 ‘바다 용왕의 절’이라는 뜻의 가이류오지 절로 고쳤습니다. 가이류오지 절의 역사에서는 위험을 딛고 당나라로 건너가 불교를 배운 8세기의 승려 겐보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. 당나라에서 돌아오던 길에 그가 탄 배는 거센 폭풍우에 휘말렸지만, ‘해룡왕경’을 계속 외친 덕분에 겐보는 무사히 일본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. 겐보가 당나라에서 가지고 온 5,000 권의 귀중한 경전은 가이류오지 절에 봉납되었고, 가이류오지 절의 주지가 된 겐보는 일본 최초로 사경장(경전을 베껴 쓰는 장소)을 설립했습니다.

그 이후 가이류오지 절은 오닌의 난(1467~1477년)과 1614년의 게이초 지진, 그리고 메이지 시대(1868~1912년) 초기에 일어난 불교 배척 운동 등 여러 차례 쇠퇴의 시기를 겪었습니다. 현재의 모습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53년에 재건된 것으로 오늘날 이 절에는 십일면관음상이나 오층탑 등 다수의 중요문화재가 보관되어 있습니다.